東亞日報
夕刊
四月十三日(金)
發行所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京城府光化門通一三九番地
電話代表番號 光化門 一九〇〇

雲南、緬甸國境에서 英兵과 三次나 激戰

班洪王인 胡玉山軍과 對峙

佛國兵도 多數侵入中

【香港十二日發】 雲南에서 온 報道에 依하면 ... 英兵은 胡玉山의 率하는 ... 三回에 亘하야 激戰한 結果 ... 英兵이 多數侵入하고잇다고 한다

(南京電報) 丁士源公使、大使外交部次長 ... 氏、杉原事務官

孫殿英敗殘兵 非戰地區侵入

【聯合北平十二日發】 孫殿英의 敗殘兵 約三千은 ... 河北 西北 約二百中里의 地點에 侵入하야 ...

混成一個旅引率

黃內政部長新疆에

英蘇勢力과 回敎徒反抗으로

懷柔成否는 疑問視

【聯合北平十二日發】 內政部長 黃紹雄氏는 九日 ... 新疆에 ... 混成一個旅 ... 第一師 ...

廣田外相積極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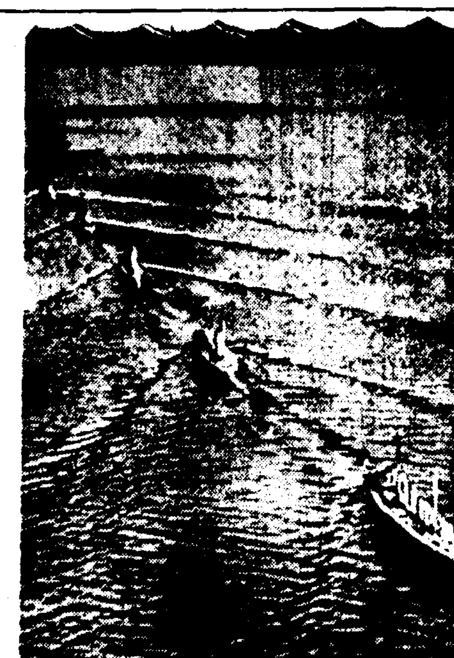
北鐵問題를 斡旋

歐米方面의 惡宣傳一掃하야

日蘇友好關係表明코저

【東京電話】 廣田外相은 最近 日蘇關係에 關하야 歐米方面에 ... 北鐵問題 ... 日蘇友好關係를 ...

(日本側) 廣田外相、重光次官、天羽情報部長、東鄕歐米局長、西歐米局第一課長



地中海를 威壓하는 英海軍의 戰技訓練

寫眞은 地中海에서 大演習을 마치고 ...

独逸、巧妙히 辯明

條約違反의 軍事費膨脹問題

對英回答案의 骨子

【倫敦十二日發】 英國外務省의 訓令에 따라서 駐獨英國大使가 質問한 獨逸의 軍事費 膨脹에 對한 獨逸政府의 回答은 ...

對中國際投資에 米國이 先着手?

頭腦同盟의 로자스敎授着滬

列國의 對中投資機運

【上海發電】 米國大統領 ... 로자스敎授는 十日 上海에 ...

깐디派轉向으로

彈壓政策緩和?

中央及地方의 禁壓令을 撤廢

國民會議派復活許可

【聯合倫敦十二日發】 全印度國民會議派의 ... 깐디氏가 七日 ...

다뉴브流域의 難問尙未解決

베르리나타게브라트論評

伊墺洪協定의 成果

陸軍의 推擧한 後任陸相을

政府는 同意할 方針

【東京電話】 林陸相의 後任 ...

林陸相辭意

陸軍首腦部方面서 期待

政局엔 別無變動

貴族院方面의 意向

青年將校間 陸相留任要望

三長官會議에 反映?

岡本代議士拘引

木內檢事가 取調中

岡本及오꼬이 家宅搜索

小山法相의 辭意도 鞏固?

綱紀問題는 無根이라도

司法部內威信問題로

有吉公使赴南

汪黃兩氏等과 對日態度協議

【聯合上海十二日發】 ...

橫說竪說

東亞日報에 連載하여 空前에 絶讚、同數를 거듭할수록 白熱化한 人氣를 바든中 不得已한 事情으로 中斷되엇든것을 今般 鄙社處女出版으로 前篇修正은 勿論 새로쓴 後篇을 合하야 一新된 永遠한 名作 「魔都의 香불」의 「決定版」을 이제 世上에 내여놋게되엇다!! 果然 「예희」와 「영철」에 多端한 戀愛는 如何히 展開되엇스며 「魔都의 香불」은 그 무엇을 意味한 것인가?

問題名編 不朽의 傑作
現代 小說의 王

作者의 말
안보면 一生의 損害

戀愛、哲學、人生、宗敎、社會等 問題의 讀本

魔都의 香불

長篇小說

朝鮮最初의 豪華版의 廉價版

絶讚、渴望의 巨篇面目一新한 決定版이 이제 完成!! 果然 出版讀書界의 獻卷!!

特典
裝幀 具本雄氏 書心作
四六判 美裝 五百三十三頁
定價 一圓五十錢

春海 方仁根 著

同胞여! 矛盾만코 迫害만은 人間生活에 잇서々 이 冊은 당신 一生의 年齡에 變化를 따라 悲痛한 十字路에서 光明의 길로 指示하는 한 시라도 놋치 못할 永遠할 名書이다!! 일그리 此書를!

啓明

全朝鮮 百四十五處選定 米穀生産費調査

自作一、自小作二、小作三의比로 各道技術者會에서決定

미곡생산비조사(米穀生産費調査)에관해서 각도에 다이러한 기술자를 모아 十二일 총독부내에서 협의회를열고 다음과같은결정을하엿다한다.

즉 첫재 조사지로 전조선에 미곡생산지로 백四十五처를 선정하기로하엿다. 그리고 이백四十五개소 조사지에 농가호수八백七十호를 선정하야 그생산비를 조사하기로되엿다.

이八백七十호의 비례는 자작농에 四十호 자작겸소작농 二백九十五호 순소작농 四백三十五호합계八백七十호이다.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각도의최근五개년간 사미고에 비례하야 배당하기로 하엿다. 그리고 각도의 배당된 조사지는 그도에서 도내각군 사미고에 비례하야 군별로 배정하기로 하엿다.

그리고 그조사지는 수리안전답과 수리불안전답을 구분하야조사지를 배정하는데 수리안전답과 수리불안전답을 제정하는데는 역시 도에서 평수와 비지를 표준으로 하야 그조사지 면적으로 배당하기로 되엿다.

조사 농가의 선정은 조사지에서 선정 될것이오 농가 호수를 자작농一、자작겸소작농二、소작농三의 비례로 선정하기로 하고 선정의 범위는 이상六호에 대하야 가급적 하로에 부번째 몰아다니며 조사 하여 거기서 나오는 생산 농안, 경파를 조사하게 하엿고 그 조사하는 하로의 거리는 十리 이내로 하기로 하엿다.

선정의 표준은

一、미작을 주업으로 할것

二、단당(段當)수량(收量)을 중위로할것

(미작계속)

三、경영의 규모 역시 중위로 할것

四、경지면적은 당해지방에서 중위되는것으로 가족과 고용이수가 보통되는 것일것을 시키는자 또는 중간 소작인은 어에 포함치 아니한다.

五、녹 밭 경작면지이 그지방에서 중위되는것으로 자작겸소작농에 잇어서는 경작면적의 비례가 중위되는것, 순소작은 자작농을 일가어려운때 一부소작지를 가저도 좋다.

六、조사농가는 수년간 변동하지 아니하는 사정이것, 즉 토지의 매매, 소작지의 매매, 기타 경작지의 변동 또는 변이등 영농상변화를 생하게 하는것이 아닌로 이는 포함치아니함 또 특별수입이나 특별지출이 잇어서 중위의생산비를 조사하기에 부적당한것

조사농가 수당금을 비농사기간에서 조사원요하면 조사농가 一호에 一금二十전을 급여하기로 하엿다는데 조사농가에 대하야 이후시일 할지하얍을 요한다.

調査地와農家의 選定을通牒

來廿二日까지到着토록

별항의 조사사항에대하야 조사지와 조사농가의 선정은 긴급을 요하므로 각도에서는 선정의방법을 각군에 철저케하는동시에 군을 독려하여서 가급적으로 속히 선정한것과 선정후에는 그선정사항을 二十二일까지에 도착하도록 보고케할것

그리고 생산비 조사월은 四월 二十일까지 각도 도지사가 이를 추천하라는 통첩을 발하엿다한다.

三月中생선값 十二萬餘圓

지난三월중에 부내에서 소화된 생선은 八만五천一백三十大판으로 그의 배상가격은 十二만一천四백八十二원三十九전이엇다. 이를 전년三월 七만五천五백六十一판의 十만八천一백九十七원 ...

自殺遺書품고 사랑잃은靑年

금十三일 오전一시경에 시내본정(本町)三정목 九十八번지 카페 와카마쓰(若松)에서 거동이 수상한 어떤청년이 술을 마시고 잇음으로 즉시 체포하야 취조하든바 의외에도 그의 품에는 애인에게 보내는 자살유서가 잇음으로 방금 보호중이라고한다.

그는 산구현(山口縣)출생으로 현재 인천부 화정二정목 조일운송점 인천지점(朝日運送店仁川支店)의 사원으로잇는 고삼정웅(高杉正雄)(二一)으로 자살을 목적하고 지난十一일에 상경한후 인천에 잇는 그의애인 고림미지자(古林美智子)에게 『울고울다가 눈물까지없어젓때 나는죽겟노라』운문의 비장한 유서를써서 품안에넣고 또 중간투에 애인에게 전해달라는부탁까지 써놓고 그와같이 술을 마시고 잇엇다는데 그간자살하려는원인은 일절 함구불언하므로 ...

今年中七大工事에 四萬勞働者需要

○○線萬二千、長津五千名要求 赴戰江、吉惠線年內竣工

총독부에서 조사한 북조선지방 주요공사장에서 현재사역하고 잇는 인원 평균의 노동자와 현재로 시의 부족되는 노동자수와 금년중으로 노동자를 사용할 예정수에 의하면 부족될 노동자의 예정수에 의하면 장진강수전(長津江水電)공사를 위시하야 부전강수전공사(赴戰江水電工事)청진(淸津)축항파 어항공사, 나진(羅津)만철공사, 길혜선(吉惠線)철도공사, 척식선(拓殖線)철도공사, ○○선(○○線)철도공사등 七대 공사장에 현재 사용하는 노동자 수효는 二만四천六백七十八인이오 현재로서 부족한 노동자가 二천七백二十三인이라한다.

그다음 금년중에 사용할 노동자의 예정수는 四만二천六백九十大인으로 연인원(延人員)이 一천三백八十만八천八백인이오 금년중에 부족할 예정인원이 一만三천五백九十八인으로서 연인원이 四백七만七천인이라 한다.

전기한 七대 공사장중에서 금년 안으로 공사를 마칠것은 부전강 수전공사와 길혜선 철도공사 등 두곳 뿐이오 명년에도 마치못할 것이며 그외는 모두 부정기이라한다.

그리고 전기한 공사장 중에서 가장많은 노동자를 사용하고 잇는 곳은 ○○선 철도 공사에 一만二천五백二인, 장진강수전공사장에五천九백大인, 나진만철공사장에 四천二백七十인 등이며 그외는 모두 四、五백명에 불과하다한다.

그러나 이앞으로도 계속되는 북조선 개척사업파 기타의 공사등으로 말미암아 노동자는 계속적으로 수용될터이므로 남조선의 실업노동자는 상당한 정도로 이전하여도 상관이 없을형편이나 큰 음식(飮食)이 맛지아니하야 큰곤난을 격그므로 방금 해서 대일진 모와함께 이동토록 주선할 예정이라한다.

李王殿下御日程

今夕京城驛에着御 【十六日에는咸興行次】

만一년만에 환사하옵시는 이왕 동비양전하(李王同妃兩殿下)께옵서는 기보한바와같이 금十三일 오후五시 경성역도착열차로 어착하옵시엇다.

양전하의 어일정은 창덕궁발표에 의하면 다음과 갈다.

◇御日程

四月十三日=▲京城驛御着

同十四日=▲宗廟永寧殿展謁▲朝鮮神宮參拜▲七宮展拜

同十五日=▲在鄕軍人會全鮮大會御台臨▲國防議會御台臨(勤政殿)

同十六日=▲京城御發咸興行啓

同十七日=▲咸興本宮御親祭▲定和陵御親祭

同十八日=▲咸興御出發京城御着

同十九日=▲洪陵、裕陵御親祭▲東九陵、健元陵、綏陵、景陵展謁▲永徽園展拜、崇仁園展謁。

同二十日=▲兩殿下御主催의觀櫻會(昌慶苑博物本館前庭)

自殺騷動

시내 용산 삼판통(三坂通)一백四十二번지 적송설자(赤松雪子)는 지난十一일오전二시경에 자살할 목적으로 다량의 쥐잡는약을먹고 고민하고잇는것을 집안사람이 발견하고 즉시 그부근병원에 입원 응급 수당을 하엿으나 十三일 오전七시에 드디어 사망하엿다 한다.

그원인은 전기 설자는 수년전부터 신경쇠약증으로 고생을 하여오든바 근일에는 불면증이 극심하야 잠을 잘자지못하든동 극도의 신경쇠약으로 그와같이 자살한것 같다고한다.

仁川上水道 宣傳에不平

【인천】 인천부 공동수도(共同水道)요금제는 一판에 一리식하야 오든 조합제도(組合制度)로 자치시개정을 속지하는 선전도五천매를 十일사포하다하야 부민의불평이 거우 완화되든양이라한은 기보한바와 같거니와 인천부에서는 송현(松峴)송림(松林)화평(花平)등 외생상 경제상 모든 방면으로 부와천와 각리에는 전기 신 전부하 一배도 사포치 않엇다 하야 一반의 불평이 높다고 한다.

어서는 一만五배七十五판이 그三전에 비교하여보면 수량에 잇어서는 一만五배七十五판이 ... 가격에 잇어서는 一만三천二백八十五원三十六전이각각증가되엿다.

三月中 反滿軍出沒回數 四千五百餘回超過

어인원수는一만三천七백여명 前月보다六百卅回의激增

최근조사에 의하면 봉천(奉天)성파하에서 三월중에 출현한반만군의 출연한회수는 四천七백三十四회로 연인원(延人員)수가 一만三천七백五十六명이라 한다.

그리고 중요동제외한 실수는 수령(首領)이 二백七十七명이오 부하가 五천六백三十五명인데 二월에비하면 六백三十四명의 증가로 서연인원은 七천一백三十명의 감소이다.

반만군의 총수에대하야는 二월보다 二천명이 감소되엇는데 이것은 일, 만군의 토벌에 의하야 귀순또는사살한 까닭이며 피해는 현금五十八천중에불과하다고한다.

假刑事行勢

시외 용강면 염리(龍江面鹽里)산一번지 최화인(崔化仁)은 十二일오후十시반경에 시내 신정(新町)十四번지앞에서 강전(岡田)형사부장이라 자칭하고 행패를하다가 동서에 체포되엇는데 그는 형사로가장하고 허다한음식점으로 돌아다니면서 무전취식을하든 상습자로 판명되엇다고한다.

專賣違反嫌疑로農民을 不法監禁코酷刑致死

京城煙草專賣支局屬官三名을 鐵原支廳에서引致嚴調

최근에 경관 금피면사건이니 혹은 양민을 피의자로 검거하야 무리한 고문으로 치사케하는사건등 강기문제가 일반의 신경을 날카롭게하고 잇는까닭에 총독부에서도 관공리의 강기문제를 엄신하게할 예정으로서 그대책을 강구중이다.

사건 발생당시 보도한바어니와 경성전매지국(京城專賣支局)의 속관 유희상(劉熙相)과 동五원 주명상(朱命相)등 三명의 관리가 평강군 남면가곡리(平康郡南面佳谷里)에서 농업하는 이영선(李永先)과 신범룡(申凡龍)을 전매령위반혐의자로 혹형과 감금함하야 치사케한 사건이 잇엇다고 경무국에 보고된것이 잇다.

이제 이사건의 경위를 들으면 전기三명의 전매국원은 지난二월九일 공무로 평강군가곡에 출장하엿을때 피해자인 이영선을 인지하야 가지고 동군동면염동리 한규국(韓圭國)의 집으로 데리고가서 엄밀한 취조를 한후 동월十五일에 또다시동군 복계(福溪)연초전매소에 데리고가서 없다는 사실을 잇다고자백하라 폭행하야 상해를 시킨후 불법감금(不法監禁)까지하엿다.

그후 피해자 이영선은 음풀주스지 못하고 누어잇다가 二월十九일에 드디어 사망하엿다.

이사실이 경성지방법원 철원(鐵原)지청에 알리게되자 동지청의 금천(今泉)검사가 활동을개시하야 피해자를 해부(解剖)에 부치엇든바 동인은 원래 폐병환자로서 폭행을당한까닭에 사망하엿다는것이 판명되엇다.

그까닭에 동검사는 전기가해자 三명을 검거하고 직권남용(職權濫用)상해치사죄로 취조하야 기소하엿다 한다.

鄭達憲公判 廿日로延期

【평양지국전화】 평양지방법원(平壤地方法院)에서 금十三일에 개정할 예정이든 정달헌(鄭達憲)등에 관한 적색노동조합사건의구형은 동법원의 사정으로 말미아마 오는 二十일에 개정하기로 연기하엿다고 한다.

家畜防疫講習

조선농회(朝鮮農會)에서는 五월十五일부터 十五일간 부산우역혈청소(釜山牛疫血淸所)에서 제一회 가축방역강습회를 개최하기로 되엇는데 강사회원은 각도의 가축위생 축산파계의 기술원으로 강사는 곤야(昆野)북도(北島)적택(赤澤)중촌(中村)등의 제씨로되엇다.

厚待者調査

경성부청에서는 부내 거주자로 현재 조합대우 이상의 파직에 잇지않은 사판으로 훈(勳)六등이상의 대훈위를 각 경찰서와 각리동총대에게 의뢰하야 조사중이라 한다.

世專後援會 寄附金許可

八만 五천원 기부허가나와 ◇委員等積極活動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世醫專)를 더욱 확충하고 또 재단법인으로 만드는것을 목표로 후원회를 조직하고 이어서 우선기본금모집허가원을 총독부당국에 제출중이든바 三월三十一일부터 八만五천원을 일반사회유지와 동창생등 제씨에게 구하고저 기부허가되엇다. 지령이 금十三일후원회이사 오긍선(吳兢善)박사에게 송달되엇다.

이로써 동교에서는 기부금을 모집하고저 동교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개시할터이라고 한다.

그리하야 바로 명일전에 본부령서광이 비치우고 잇는데 이기부허가가 나오자 바로이날 전라남도 김제(金堤)에잇는 동교대표 十四년도 졸업생 강대호(姜大浩)씨로부터 『교표가 군당무성 지러울 언개되을 중심으로 축하하는동시에 아울러 모교기금에 보하여달라고 금一천원을 기부하여 왓다. 동교는 자못기뻐한다.

追擊받든强盜 巡査를亂刺

평양서서검거

【평양지국전화】 금十三일오전영시四十분경에 평양부 하수구리(平壤府下水口里)六十번지 방임순(方任順)의집에 강도가 침입하야 부녀를위협하고 금품을강탈한다는 급보를 부근의 장별리(將別里)파출소에서 접하고 즉시 동파출소 임(任)순사는 현장에출동하엿든바 범인은 때마침 도망중이엇섯다고한다.

이광경을 발견한전기 임순사는 즉시 추격하야 체포하고저 하엿든바 다라나든 그범인은 돌변 돌아서서 임순사의 얼골과 손 발등처를 란자하야 중상을 입혓으나 범인은 그대로 도주하여 행방이 묘연 평양서에서 엄중취조한결과 그범인은 평양 부외에서 현재 주소가 없이떠돌아다니는 방화전파 범인 양래진(梁來鎭)으로 판명되엇다고한다.

그런데 평양서에서는 그의여범발하든 화재(火災)사건도 그자의 소행이아닌가 의심하고 엄중히취조중이라고한다.

海南署月餘活動으로 靑年七十名檢擧

某種秘密結社綻露 고등계에서는 계속하야 활동중

【해남】 전남 해남경찰서(海南警察署)에서는 전라남도 경찰부 고등과(高等課)지휘하에 얼마전부터 대활동을 개시하야 검거한것이 七十여명인바 밤을새워가면서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다는데 취조함에 따라 검거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고등계(高等係)에서는 계속활동하야 검거중이어서 사건내용은 극비밀에 부치므로 아직 자세알수없으나 일반에 알려진바에 의하면 무슨비밀결사가 탄로되지나 아니하엿는가하야 일반은 매우주목된다고 한다.

天氣豫報

中國의 高氣壓은 그勢가强하고 滿洲、朝鮮에퍼지고日本方面에는 氣壓이낫다。兩朝鮮은 雲이만코 其他는 日氣가좋고 一般으로北風이잇고 氣溫은 昨日보다 좀 나리엇다。

來日은 日氣좋고 차다。

◇晴

昨日氣溫 最高 [illegible] 最低 [illegible]

비개이고 바람맑은 교외로 가벼운 걸음 길

極東올림픽은 어디로가나?

山本代表의電文中絕에 日本體協大狼狽

【東京에서十三日黃乙秀發特電】 滿洲國參加問題로 危機에直面한 第十回極東올림픽大會問題에 對하야 日本體協은 十二日 最後의手段으로 필립핀 體育協會에對하야 十四日까지背信하게된經緯이 奈邊에잇는가하는 誠意與否를 물어보고 그回答이없거나 또 그如何로 日本은 不參加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上海에잇는 中本代表 山本博士의電文이 中止되고잇어 日本體協對 山本間에 誤解가 깊어저 狼狽하고잇는모양이다。

代表者談話에 相違가잇는듯

【聯合마닐라十二日發】 滿洲國의 極東大會參加問題는 日、中、比三國의 圓卓會議가 事實上 決裂한結果、依然 紛糾하기에 이르럿으므로 빌거스副會長은 十四日午前十時 體協常務委員會를 再開、本問題에 關한 필립핀體協의 態度를 最後的으로 決定하기로 되엇다。그러나 右常務委員會에서는 다만 十日公表된 빌거스副會長과 日本代表 山本博士와의 交換電報로 鮮明하게 된바와같이 필립핀體協은 어디까지든지 滿洲國의 參加는 全會一致를 要한다는 立場을 固執할것이라고 觀한다。빌거스副會長은 目下 避暑地 빠기오에 滯在하여잇어 十三日 마닐라에 歸還할 豫定이다。한편으로 마닐라駐剳 木村日本總領事는 十二日 필립핀島 體育協會理事 빠라빠에레이아미氏와 會見協議를 하엿는데 會見後 木村總領事는 말한다。

余는 昨日(十一日)東京에 打電하고 필립핀人民의 感情을 함부로 刺激하는일이 없도록 進言하엿다。아무래도 山本博士와 比島代表役員파의 間에 아마 이야기가 相違된것이나 아닌가고 생각한다。

에 日本體協과 比島體協、日本體協과、代表團파의間에 種種의 誤解를 生한때문에 問題를 極度로 紛糾케하엿음은 自己의 不察인바로 이에 慚愧에 견딜수없다。일은 또한 簡單할것이면서도 여간 複雜하게된것이아니다。벌서 現在로는 到底히 한장의電文等으로는 充分한 說明이 되지못한다。代表一行은 豫定대로 明朝長崎丸으로 歸東할터이므로 그후에 一切를 報告하기로하야 眞相도明瞭히 할터이다。萬一 代表一行으로서 取할 責任이잇으면 自己는 潔白하게 責任을받을 覺悟이다。

滿洲國參加하면 中國은脫退

◇…南京敎育部가再三聲明

【聯合南京十二日發】 中國南京政府敎育部當局은 十二日 極東選手權大會에 滿洲國이 參加되게된다면 中國은곧脫退할것을 再三聲明하엿다。

山本博士떠나면서 比島의反省을 끗까지要望

【電通上海十三日發】 滿洲國極東大會參加問題로 日本體育協會로부터 特派한 山本忠興博士 松澤一鶴 兩代表及 鋤田滿洲國體協代表의 三氏는 十三日午前九時發의 長崎丸으로 歸東의途에 올랏는데 山本博士는 出發前 比島體育協會副會長 빌거스氏에 對하야

余는 十二日 本體育協會가發한 貴下에 對한 質問電話의留保를 電請하엿으나 余는 日本體協의 態度를 어디까지든지 支持하는 바다 따라서 余個人으로서 十二日에發한 留保要請電報를 撤回한다 此際比島에서도 東洋스포—츠의 正義維持를爲하야 猛省함이 잇기를 바란다。

라는 留保取消電文을 發하엿다

곧歸東하야 一切報告

山本博士의聲明

【聯合上海十二日發】 日本體協파 代表團파의 相違、日比兩國體協의 交涉紛糾에 對하야山本博士는十二日다음과같이聲明하엿다

日中比三國 圓卓會議의 協議內容이 極히 不正確하게 報道되엇다。自己와 比島代表와의 間에잇 所謂誤解한것은 多少틀림이 잇어서 會議終了後의 今日

人生問題

죄의 근원과 그결과

죄에 대하야 의론을 부치는 일이 만다 혹은 인생의 지식이 부족한것 뿐이지 죄라는것은 없다 하고 혹은 사람의 본성이 착하지 만은 물욕이 폐하야 죄가 되엇으니 본성을 수양하면 군자가 된다 하고 혹은 본성이 악하야 아다리 하지라도 고칠 희망이 없다 한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친것은 죄는 무서운 신자부터 처음 장충을 받은 사람을 징충에 끌어 좋은 것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더 밝혀진것이 다 선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남이 선하신 이상에 그 내신 만물의 형상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성질과 같은 선한 본성이 없거나 악하리오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의 직무로 그의 조롱인 첫 사람을 꾀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엿으니 이것이 곳 죄가 되고 죄를 따르는 저주가 된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말하는바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이 처음 내신 시조에게 잇어서 하나님의 본성만큼 착하엿지만 한번 범죄하고 저주를 받은 결과 그 착

한 본성은 아조 악하여지고 약성이 강하여젓으로 능히 스스로 약성을 이길수 없게 되엇다 그리하야 아모리 도덕적 교훈과 묵상할 수양으로도 一시적 착한 마음을 감발시키고 약간의 착한 행실을 지을수 잇지만은 근본적 해결을 지을수 없는것이다

이 범죄의 결과는 주요히 두가지로 볼수 잇으니 첫재는 인생의 사망이 다 이 두가지 사실은 생리적과 심리적으로 보던지 종교적으로 보라 보던지 다 증명할수 잇다 죄악의 심리를 가지고 죄악의 생활을 행하는자 자연한 마당의 고통을 따라서 정말 사망 이런 이것이 사실이오 종교적으로 보아 죄인에게 벌이 잇음에 마시막 저주인 사망은 육신에 한한것이 안이라 사람의 본성이 영혼까지 그 내신 자가 하나님 이 없이는 영원한 지옥의 영벌 불에 드러가게 된다 모든 역사 아-이 죄악의 참담한 결과!

세상을 얼마나 불행하게 하고잇 는가?

京 金 城 京城金銀地金分析所 杉山商會 高價買 杉山商會

地方部長(國長)招聘 熱心誠實의士、年齡三十歲前後、… 南大門通 日華生命保險會社

開催日 三月三十一日(土) 四月一日(日) 四月二日(月) 四月三日(祭) 四月七日(土) 四月八日(日) 四月十四日(土) 四月十五日(日) 京城春季競馬大會 勝馬投票券 金貳拾圓 金五圓 券發賣

値上廣告 相當數量 … 京城中華料理組合

印島彦 도간이 特許 三一〇

辰巳商事株式會社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産婆 金奉允 入院隨意 診察

食料玩具問屋 金豊田屋本店

문동병

李昌煥著『朝鮮歷史』 老少紳士의必讀하시는 最古文明國이며… 全一册出來!!

發行所 北星社

恩給 … 大衆新聞社

福運의새福의新債券

雨衣 朝鮮防水布製造所

肥滿劑

便所 防臭劑 イマヅ 芳香

西部無敵王

優美館

慶北東海稀有의不漁
五千餘漁業勞働者空手
주인실패로 고용들도 빈손
三個月間苦勞도水泡

【포항】 경북 어업의 대종(大宗)으로 매년 十二월 十六일부터 이듬 三월 十五일까지의 어기(漁期)를 가지고 三백여개소의 정치어장(定置漁場)과 五천여 어부의 노동(勞動)을 요하는 청어(靑魚)어업은 금년은 개업이래 처음 보는 흉어(不漁)로 당업자의 곤경은 물론 一반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다 함은 누보한바이어니와 어업노동자의 임금제(賃金制)가 아즉 확립되지않고 아직 월시시 종주형태(從主形態)를 벗어나지못하야 어업노동자가 어장에 고용되는때는 一정한임금의 결정이없이 일하는 동안에 우선 연료를 주고 노동용으로 갓바(合羽)(어장에서입는 기름옷)와 고무장화(長靴)를 주어 三、四개월동안 일을 시키고 어장말기(末期)에 그어획고(漁獲高)의 백분의 十五 내지三十을 주고 어획이 전연없는때는 갓바와 고무장화만 주고마는 관측이있어 어장주들은 어부들을착취하고 무리한 착취를 하는폐단이 없지않은데 금년은 어획을 구실로 임금을 지불치않어 三、四개월의 수고로 수포로 돌아가고 빈손으로 어장을떠나는 어부들이 무려 수천명에 달하리라한다.

海州 赤色勞組 反帝同盟 兩事件公判
最高五年役言渡
최하 二년까지의 체형이 六명
執行猶豫가十六名

【해주】 적색노동조합 황해도재건준비위원회(赤色勞働組合黃海道再建準備委員會)사건의 관계자 이형식(李亨植)외 十一명과 해주고보생(海州高普生) 중심으로 조직된 반제동맹(反帝同盟)사건의 관계자 양원건(梁元建)외 九명 총二十二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사건의 구형공판은 지난三월 二十三일 二十六일 二十九일 三일간에 마치고 최고七년 최하一년의 구형이잇섯다함은 이미보도한바와 갈거니와 지난十二일에 예정과갓이 김사(金子)재판장으로부터 판결언도가잇엇다 체형은 최고五년 최하 二년이라하며 十六명에게는 五년간집행유예(執行猶豫)를 언도하엿다는바 판결언도는 다음과갓다고한다.

◇赤色秘社事件

	求刑	言渡
李亨植(?)	七年	五年

金德汝(?)	七年	四年
朴成善(?)	六年	三年
崔昌植(?)	二年	二年
吳在根(?)	一年	一年
金基成(?)	一年	一年
姜能雍(?)	一年	一年
黃鳳老(?)	一年	一年
洪性煥(?)	一年半	一年半
吳明煥(?)	一年半	一年半
辛可東(?)	一年	一年
金福鍋(?)	一年	一年

(以上八名五年間執行猶豫)

◇反帝同盟事件

梁元建(?)	二年	一年半
沈義淑(?)	三年	一年半
李炯均(?)	二年	一年半
金世彰(?)	一年	一年
崔道淳(?)	一年	一年
李士信(?)	一年	一年
金相鉉(?)	一年	一年
張承夏(?)	一年	一年
姜自根(?)	一年	一年
張瀾淵(?)	一年	一年

(以上八名五年間執行猶豫)

海州時計店火災는 放火로判明
보험금 三천원을 먹고저
主人取調中事實自白

【해주】 지난 一일 오전四시十분경 해주읍 본정통(海州邑本町通)에서 一만여원의 손해를 보게된 화재사건은 보험금사기를 목적하고 방화를 하엿다는 혐의로 상화시계점(賞和時計店)주인 삼원(杉原)(전번 보도의 소천(小川)이라함은 삼원의 양조부(養祖父)이니 정정함)을 해주서(海州署)에서 엄중취조중이라함은 기보하엿거니와 이에 자세한 내용을 드르면 전기 삼원저작(杉原猪作)은 현재수소에서 그대 양조부 고소천작일(故小川作一)이 경영하고잇든 시계점을 지난 소화 六년 七월경에 인수하야 경영하든중 양조부소천(小川)이가 사망하자 삼원은 다시 방랑의 길을 보게되엇다한다.

그는 경제적으로 극도의 궁핍을당하엿든바 마산내 조선화재보험회사(朝鮮火災保險會社)에 三천원을 계약한것을 탐내고 지난 四월 一일 오전三시반경에 자기 소유의 귀중품을 가방속에 넣고 방화를 한것이라고 자백하엿다한다.

그리하야 전기 삼원은 방화범으로 지난 十二일에 해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어 도부(渡部)검사의손에 엄중한 취조를 받고잇다한다.

堤川鄕土講習會盛況 【제천】 본사제천지국에서는 三월二十일부터 十五일간 제천공보원에서 문화지수 강습회(文化鄕土講習會)를 개최하엿는바 강습생이 四十여명에 달하야 대성황리에 강습을 종료하고 五일부터 二일간 강습생작품 전람회(講習生作品展覽會)를 개최하엿더니 一반관람객의 대만원으로 공전의 성황이엇다 한다(사진은 동강습기념촬영)

禮山驛塔里에 假拳銃强盜出現
現金十二圓을奪走

【예산】 충남예산군 오가면 역탑리(禮山郡吾可面驛塔里) 김효월(金孝元)(二八)방에 지난八일 오전四시경에 나이三十세가량 되는 자가나타나 손에무기를가지고 문을열고 들어와 내어놓지않으면 죽일테라고 위협하고 현금 十二원을 강탈도주하엿다는데 그 범인은 검정두루마기를 입고 경관을 속이어 엄중히수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세한 말을 듣고 조사중이나 하등의 단서를 얻지못하엿다 한다. 피해자는 폭우를 당하고 아직도 개운치않고 상처가 중하야 면상을 해한 혹은 배후에 사상계통의 인물이나 잇지않은가하야 더욱 엄중 취조중이라고 한다.

癩病患者千六百名
小鹿島(十月)에收容
◇중증과 주소부정 환자들만
各道別로數爻配定中

【광주】 조선 나병예방협회에서는 전남소록도(小鹿島)에다가 조선내에 산재하야잇는 나병환자를 三개년계속사업으로 전부 수용하기위하야 그건축공사에 분망중이라고함은 본지에 누보하엿거니와 제一년인 작년에는 四백명을수용하엿다고하며 제二년인 금년에는 一천六백명을 오는十월에는 수용하게되는바 방금각도에 그수효를 배정중이라고한다.

그런데 금년에수용할자는 중환자와 일정한주소가없이 가지로부랑배회하고잇는자를 수용 할것이므로 오는十월이후에는 어떠한 병환자는 거의 없어지게되리라고 한다.

統營癩患者 飮食店威脅
위협적으로 구걸자 다수
五十餘名檢擧還送

【통영】 통영(統營)시내에서는 재한나병자(癩病者)들이 떼를지어 위협적 구걸을 행하는가운데 나아가 一반시민들은 불안하게 지내엇든중에 지난十一일 통영경찰에서는 나병자 五十여명을 검거하야 각각본적지로 환송하엿다고 한다.

七十翁割腹
시체를발견

【장연】 지난九일 오후두시반경 장연군 기오면 희허리(金化面)(?) 구장 이암시(李岩石)이 집앞으로 넘어가는동 길가에 노인이 누엇슴을 이상이 생각하고 자세히 본즉 전신에무상이가 된 시체엇음으로 즉시 소관서에 고하엿는바 경찰에서 즉시 현장에 급행하야 시체를 검시한결과 시체는 조사한결과 노인은 한상옥(韓商玉)씨를 대동하고 현장에 가서 시체를 검시한결과 시체는 오래전에 노쇠하고 낙망하야 생활고로 자살한것이라 하며 노인은 일부 사업이 실패하야 생활이 말할수없이 곤란한 처지에서 주소도 의수없다는바 나이는 六十세가량 되어보인다고 한다.

海州에嬰兒屍
범인을수사중

【해주】 지난八일 오전十시경 해주읍 북욱정(海州邑北旭町) 九번지 윤씨(尹氏)(?)가 나무를 하기위하야 하열정(瀨熱亭)에서 산중으로 올라가다가 한三백미돌가량 떨어저잇는 산중에서 아시체를 발견하고 해주경찰서에 알렸는바 포대에 쌓아 내버린영아시체엇음으로 즉시 수사중이라 한다.

大同江怪魚
正體모를珍魚가出現
數千群衆雲集
◇十二일능라도부근에서
牛頭鯨背의巨長物

【평양】 능라도 부근 대동강에 괴물이 나타나서 부단지않게 바람이 부는 十二일 수천명구경군을 강언덕에 모엿섯다.

괴상의 정체가 무엇이지는 기자로서는 채임잇는 말을 할수는 없지마는 대동강에서 보지못하든 광경이 크고 크기가 떠오른것이다.

평양의 크면 얼마나 크나 하는 정도 파하지도 이라니 그머리는 황소 머리만하고(?) 그등빠이는 고래등같다고 하며 그정체가 상당수잇는것 척도로서 아긴좀은 물이라 하며 바다에서 떠드러온 모양이라는 대동강에 이상한 동물이 자그만 물결을 꺽거 날뛰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모두가 놀래어 생각이 어떤 진물(珍物)이 나타난것이나 아닌가하여 그 구경군 중에는 무슨고기 인지 라하며 이군을 할수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엇다한다.

南旨警察活動
要人家宅搜査

【남지】 경남남지(南旨)경찰에서는 지난十一일 당지경찰이 아연활동을 개시하야 북산(北山)순사부장파 이(李)형사가 관내 마사리(馬山里)에가서 이주목(李周穆)씨의 가택수사까지하고 문서수건을 압수하여가지고 갓다는데 내용은 비밀에 붙이므로 알수없으나 무슨단서나 잡은듯 하다고한다.

酒品評會審査會

【통영】 경남산에 四백만원을 돌파하는 경남조선주 품평회를 예정한 지난十일 통영(統營)서 개최하고 당일시사를 마치고 이十一일 통영해사회사(統營海産會社)회의실에서 경남도 내무부장이하 각관계관청을 비롯하야 경남 조선주관각자 제조인자 四백여명의 열석으로 심사보고회를 개회하고 등급을 발표하고 래빈의 축사가 잇은후 감동여흥으로 무사히 폐회하엿다고한다.

淸州音樂會
성황리에종료

【청주】 본보청주지국에서는 제금가(提琴家)박한민(朴漢敏)군과 피아니스트 김재창(金在昌)군을 맞이하야 청주 의부의사의 조연으로 시공회당에서 지난十일오후八시부터 청주앵좌(淸州櫻座)에서 개최하엿는데 정각전부터 입수의여지가 없을만치 대만원의성황이엇다한다.

全北今年度 救窮土木事業
공사비는 三十四만여원
使用人夫卅三萬名

【전주】 전북도에서는 九년도 궁민구제사업의 하나인 사방공사를 각군에 시행하리라는바 총예산액은 三十四만 二천팔원으로 시행면적은 六백七十여정보라 하며 사용인부수는 三十三만여명에 달하리라고 한다.

仁川圖書館入場의 七割이無職
그네들은 갈곳이 없어서
三月中統計千七百

【인천】 인천부립도서관(仁川府立圖書館)의 지난三월중 입관자의 통계를보면

種別	朝鮮人	其他	計
學生男	三一		
學生女			四九一
敎員			八
記者			四
官公吏	九		九
銀行	二		二
會社	三		七
農工商	七		三
無職	三三一		四二九
新聞	六九〇		九九八
計	二六三		七七二
總計	五七一		一七七〇

이상파갓은 통계를보이고 잇는데 가장 무직자가 많은것이 특색이라고하며 七할이상의 무직자의 수가 입관한다는데 무직자는 三천여명이라는것이 특색이나 결국의 한구석을 보이는 사실이라 하겠다고 한다.

어느 여론상에 이 무직자들도 시정에 활보하기보다는 이러한 처소에서 하로를 보냄이 나은듯이 생각된다고 한다.

싸갑으로 싸움
毆打生命危篤

【남지】 경남창녕군 영산면(靈山面) 영산 월천리(鄕泉面松南里)(?)에 사는 도처면을 영산면 화원가 도치면과 싸우다가 가 그에게 얻어맞고 마산(馬山)도립 병원으로 十一일 아침에 향하엿다는데 싸움하는원인은 싸갑이라한다.

光州學生事件
張載性氏出獄

【광주】 아지도 기억에 새로운 광주 학생사건의 장재성(張載性)씨는 광주지방법원에서 七년징역의 언도를 받고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하야 四년징역의 언도를받은후 복역하여나오던중 지난번은사로서 二년 二개월二十九일로 형기가 감소되어 지난十一일에는 감거되어우 六년만에 광주형무소에서 만기출옥하엿다고 한다.

光州刑務所의 趙基ㅠ失眞
미결신음三년

【광주】 미결신음 三년동안에 정신이상이 생겻다는 청년이 광주형무소에 잇다는사실 소화七년 一월에 전남도청으로 대검거를하엿던 전남노동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사건에 관계되어 방금 광주형무소 미결감에 구금되어잇는 조기원(趙基元)(二十)은 정신에 이상이 생기서 그가족이 면회하엿으나 사람을 알아보지못하고 이상한 말을하고잇으므로 그부형은 방금 보석청원을 제출하기로한다 고한다.

刑務所當局者談 별항보도한 조기원 신심문제에 광주형무소 무당국자는 오래만에 그가족과 대할때에 一시의 착각으로 정신이 몽롱하엿스나 그후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엿다.

各道別로數爻配定中

판매비료(販賣肥料)값이 十一만九천八백三十八원 도합八十八만四천一백六十八원이라는데 전년도의 소화七년도의 자급비료 六十四만 六천八백九十원 판매비료값 六만四천八백四十원 도합七十一만 四천五백三十원에비하야 十六만九천六백三十원이 증산상태(增産狀態)라고한다.

元山讀者慰安
野談會大盛況

【원산】 본보 독자위안 윤백남(尹白南)씨야담대회(野談大會)는 예정대로 十일오후八시부터 원산제동 천도교당내에서 원산지국장 김하신(金河汛)씨의 간단한 개회사가 잇스다음 윤씨의 야담이 잇엇는바 원산에서는 처음개최되느니만치 四백여명의 대성황리에 실로 두시간十분이지난후 모든 게박수성리에 무사히 폐회되엇다.

天安自給肥料
七十六萬餘圓

【천안】 천안에잇어 경작총면적 一만九천 三백七十五정보에 자급인 소화八년도에는 과연 얼마나많은 비료를 사용하엿는가를 군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가 경으로 환산한 자급비료(自給肥料)는 七十六만 四천三백二十二원

海州各富豪에게 金錢을强要
十五명에게 협박장 발송
犯人은楊順明(?)判明

【해주】 지난 三월五순으로부터 四월六일까지 해주읍부호 서영정(西榮町) 이수영(李壽永) 오세호(吳世鎬) 동영정(東榮町) 김상돈(金相敦)제씨외 十二명에게 三백원으로부터 四백원씩을 가저오라는 협박장을 각각발송하엿다고 해주경찰서(海州署)에서는 범인수사에 대노력중이든바 지난 十二일 미명에 해주군 서변면 선산리(海州郡西邊面仙山里)양순명(楊順明)(二三)을 유력한 혐의자로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전기양순명은 모든것을 생황난으로 그리하엿다고 자백은 하엿으나 배후에 무슨 연락이나 없나하고 엄중한 취조를 진행중이라고한다.

自動車二臺 江中에墜落
양일간 청천강과 평문강서
人命에는損失없이

【신의주】 지난七、十一일 양일간 청천강(淸川江)과 명문강(明文江)에서는 자동차추락 사건이 일어낫엇다.

十一일 오후四시경 평안(平安)자동차상회 소유의 승합자동차평북一六一호에 소포 一백二개를실고 운전수 정상현(鄭尙彦)(二二)이 조종하야 허천(熙川)으로부터 중강진(中江鎭)으로 가던중 자동차에고장이 생기어 二十척아래의 청천강에 추락하엿는데 다행히운전수는 떠어나려 이마에 치료 一주간을 요하는 경상을 입엇을뿐으로 큰 인에는 엉이지 아니하엿고 소포도 九十四개만은 건지어 내엇으나 기타는 어두운 밤이오 묵물이 빨라서 이어서 건지지 못하엿다.

이보다 먼저 十일 오후 六시경 평양부 역전리(平壤府驛前里) 九六 이창식(李昌植)(?)은 강계읍 (江界邑) 박영준(朴永俊) 소유의 평북六三九호 트래크에 송판(松板)을싣고 이를 조종하야 강계로부터 희천(熙川)으로 달리든중자동차「스프링」에고장이 생기어 희천군북면 명문동(熙川郡北面明文洞)부근의 명문강에 추락하엿으나 다행히 운전수와 조수 이윤식(李允植)(?)은 경상을 입엇을뿐이라는데 손해는 약五十원에 불과하리라고한다.

平壤科學데이
부민과함께맛고저
自動車로宣傳

【평양】 오는 十九일「파하데이」를 부민과 함께 뜻잇게 맞이하고저 평양 파하동호회(科學同好會)에서는 방금 각반 준비에 분망중이라 한다.

중요한 순서로 보면 이날 정오부 행진하면서 선전삐라를 뿌리고 자동차 二十여대가 시내를 돌며 하는 동시에 밤에는 백선행기념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하리라 한다.

자동차 행진은 부내 수호리 본사평양지국앞에서 一제히 출발할 터이며 밤의강연회 연사는 미국 이학박사 조응천(曺應天)씨와 동철학박사 이훈구(李勳求)씨라고 한다. 특히 조응천박사는 라디오에대한 최근 연구에 대하야 연단에서 一반청중에게 실험을시키면서 하숙적강연을 할터이라하며 이훈구 박사의 강연제목은 아직 미명이라고한다.

會合

◎批峴信成學校學父兄會 去九日下午三時에 同校講堂에서 開催

消息

◎西鮮壽不氏(元山第一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 本報元山支局來訪

◎宋舟用氏(鶴山公普校訓導)新任人事次 本報鶴山支局來訪

◎孔源氏(批峴信成學校校長)新任人事次 本報批峴支局來訪

◎吉暻官氏(朝鮮殖銀義州支店員)轉勤人事次 本報新義州支局에 來訪

◎李昌鎬氏(本報義州支局長)去十一日午後八時五十分에 邑內東部洞自宅에서 還甲宴

蜂火 (三二五)
尹白南 作
李靑田 畫

二〇、봉화 ●

중안대자의 거느린 수천군사는 나사파스끔(泥沙波忽—今麻田地方)근방人재를 넘어 마치 급류가 여울을 벗어저 흐르듯이 운하갈이 남으로 남으로 몰리어 나려갓다.

재우에 올라서 멀리 왕봉(王峰)다망(?)일人대의 하늘을 바라보니 목적하는 다맛은 아득하야 눈에 보이지아니하나 바로 지호지간에 잇는듯이 생각키어 싸우기전에 대자의가슴에는 이미 천하를 병탄한듯한 웅대한 기세가 서리어 잇엇다.

싸움은 패양 적군의 기선을 제하야 적군의 허한곳을 찌르는자가 승리를 얻게되나니 이전란을 능히 알고실행한 힘잇는 대자는 채쪽을 들어 일군에 호령하여 일각도 쉬지않고 행군을 강행하엿다.

다맛 당도자가 꿈에도 상상하지못하는 틈을타서 장구하야 알거에 다맛을 함락시키자는 계략이엇다.

연로 백성들은 중안대자가 몸소 진두에서서 배제를 친다는 장엄한 뜻에 감격 하여 서로다투어 양미를 나려 군사를 위로하엿다.

대자의 군사가 문원의 봉파가 들 기세로 백제를 향하야 처들어 가는 때에 해상에서는 울필의군사가 수십척에 분승하야 축노를 이어 웅천(熊川) 소범곳(牛伐串)을 돌아 행선한지 몇파 이일에다맛 해상갓가히 이르렀다.

여기서 울필은 행선을 멈추고 날人자를 꼽아보앗다.

수륙어 병진하여 일시시에드리처야하지 칭찬할바으로 육지는육지 수군은 수군대로 각자 공격을하면 해륙협공의 본의가 없어지고 지금으로 하여금 복배수적의 곤화를 면케하는것이매 울필은 대자의군사가 육지로서 다맛을 드리치게되는 날人자를 헤아려보는 것이엇다.

무론 대자와 작별할때에 아모날 아모시쯤에는 정령 다맛을 드리치겟다는 약속을하고 헤어젓지마는 이러한일이란 중간에 어떠한 고장이 생기어 느저질런지도 모르는일이며 더구나 해상은 풍낭관계도 잇어 육지와갈이 일人정한 노정을작정하기도 극난한일이엇다.

울필은 배 한척을 먼저 떠나보내어 다맛해안갓가히가서 망을보다가 육상에서 전쟁이 개시되는 기맥이 보이거들랑은 곧 봉화로 신호를 하도록 하엿다.

울필은 군선을 다맛을얼마떠지아니한 해안 어느 산모퉁이에 드리어 정박시키고 선발시킨배에서 신호가 잇기만을 기다리엇다.

그러나 해가 점으러가도록 신호가없다. 발시킨배로서는 아모런 신호가없드니 띠경엔 그배마저 본진으로 돌아와서 육상에 아모런 기맥이 보이지안는것을 보고하엿다.

이리하야 울필은 산모퉁이 안에서 하로人밤을 지나게되엇는대 이날밤 초저녁이 조금지나서부터 바람이 일기시작하여 파도가 높아지고 폭우가 쏘다지기 시작하엿다. 창졸중에 우비를 넉넉히 준비하지못한 병선에서는 무수하고 木달 걷그지않으면 아니되게되엇다. 그러나 그곳을 떠날수는더구나 없어서 료선끼리 서로 떨어지지않도록 단단히 붓드러매고 하로人밤을 간신히지나 날이 취하게 밝어진후에야 겨우 안심들 하엿다.

바람은 잣다 그러나 비는 일찍 끄니지아니하드니 그날 점심때에 겨워서부터 우세가 꺽기어 가랑비로 변하엿다. 그러나올 밀입한 해미가 에게는 비보다 더 곤난한 해미가 끼어들기시작하드니 나종에는 닷 十긴 앞이 내어다보이지않게되엇다.

천지는 암담하고 다만 눈에보이는것은 젓빗가튼 안개가 연기갓기도하고 구름갓기도하게 안전에 수천을 느리게 이동하고잇을뿐이엇다.

군사중에는 배의생활을 하여본자도잇어

「제—기 내 배를타고 十여년을 다녀보앗지마는 젊기는 처음이라구하지마는 아직도 겨울같이 치운데 눈이 아니오고 비가 오는것도 피이하거니와 이질기에 해미가 끼다말은 처음보고 보는일이며 이게 좋은 조짐아 는 종조야!」

하고 어이 없어하는놈이있엇다. 울필도대자 연의의함에는다 무탐탐 할 수없엇다. 어찌하는수없이 이날하로는 더 정박하고있엇는대 다 저녁때가 돼서 무엇을생각 엇나지 울필은 신이하는듯하 나를 불러서 명령을나리엇다.

婦人見學團募集

◇時　日　四月十六日午前八時半

◇集合場所　淸州第二公普校

◇申　請　會費二十錢을 添付하야 十三日까지 (但晝食自供)

◇見學場所　道製絲會社、郡農工場、種子組合、各銀行、各學校、製絲工場、郵便局、刑務所、道廳

主催　東亞日報社淸州支局

第九回 馬山市民大運動會

◇時　日　四月二十二日(日曜)

◇場　所　俱樂部運動場

◇主　催　馬山市民運動會準備會

◇後　援　東亞、朝鮮、中央三支局

海岸視察團募集

◇時　日　自四月十四、十五兩日間

◇場　所　鎭海、統營、麗水、馬山

◇募集人員　三十名

◇會　費　每人當五圓五十錢씩

◇申請期日　四月十三日까지

主催　東亞日報社陝川支局

米、肥料等移出은激增되고 絹、綿布等移入도增加

◇出超二百六十萬七千餘圓◇

三月中朝鮮對 移出入槪況如此

昭和九年三月中 朝鮮對 日本內地貿易狀況은 左와如함(單位千圓)

移出入品價額

	三月 本年	前年	增減(△印減)	一月以來累計 本年	前年	增減(△印減)
移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移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入超過	出超 二、六〇七	入超 一二三六		出超 [illegible]	出超 八、[illegible]	

備考 三月中移出入價額의 前年同月에 比하야 增減이 顯著한것은

(一)移出品

增加된것	增加額
米	九〇八四千圓
肥料	八四七
鋼	六九三
綿織	四八一
金屬	二四八
洋紙	一六三
石炭	一二七

減少된것	減少額
柞蠶生絲	六八八千圓
大豆	三八八
乾海苔	二一八
生絲	一五九

(二)移入品

增加된것	增加額
綿織布	九四〇千圓
絹布(人絹布)	五九二
肥料	四七三
砂糖	三六九
麥酒	三三三
揮發油	二四六
木材	二九一
機械類	二三五
鐵材	二一五
石油	一四二
機械類	一二二

減少된것	減少額
石炭	一八九千圓
綿絲	一〇三
米	七二

別로會合하야 各界意見을 綜合하고 午後[illegible] 會議協定하기로되엇는바 船主側은 約三割引下에 對하야 荷主側은 約一割引下의 七十五圓으로 改定을要求하기로되어 容易하게 解決은 困難視되고잇다

朝鮮米擁護 期成會報告會開催

朝鮮米擁護期成會에서는 今日午後五時부터 銀行集會所에 [illegible] 委員의 報告會를 開催하기로되엇는데 五月中旬 總督府에서 開催될 [illegible] 豫定이며 目下準備를 急히하고잇다

新京、奉天에 保稅倉庫設置

日本內地及朝鮮으로부터 滿洲 [illegible] 輸出되는 貨物은 大連、安東、營口等에 通關하야 不便不利가 不少하엿고 이의 通關上의 不備를 期하야 通關手續의 不便을 改正하려고 輸送日數의 經濟及輸送 [illegible]

上旬의鐵道荷動 十八萬六千餘噸

◇米發送依然激增

昭和九年度 四月上旬中의 鐵道局鐵道貨物發送噸數는 合計十八萬六千八百五十二噸에 達하고 前年同旬의 十四萬五千八百三十六噸에 比하야 四萬一千十四噸의 激增을 示하고 好成績으로 主要品別發送數量은 左와如하며 北鮮 [illegible] 雜穀의 影響에 依하야 主産地가 收穫計外로되어 減少되엇다 大豆木材의 減少는 外米의 影響이 著하야 增加되엇다 [illegible]

	前年比(△印減)
米	[illegible]
粟	[illegible]

品名	本年	前年比
大豆	[illegible]	[illegible]
雜穀	[illegible]	[illegible]
生鮮野菜	[illegible]	[illegible]
木材	[illegible]	[illegible]
薪	[illegible]	[illegible]
石炭	[illegible]	[illegible]
鑛石類	[illegible]	[illegible]
鮮魚	[illegible]	[illegible]
肥料	[illegible]	[illegible]
其他	[illegible]	[illegible]
局用品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朝鮮米夏季運賃 今日本交涉進行

協定成立은尙今遼遠

朝鮮米夏季運賃交涉第二日은 本日午前十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開催되엇는데 午前中은 穀物聯合會側 朝鮮穀物商組合聯合會、日本內地穀物商業者各側과 船主側에 對하야 午後부터 本交涉에 들어갈터이나 雙方의 主張에 相當한 懸隔이 잇어 協定成立까지는 數日을 要할 模樣이라 한다

交涉方法決定

朝鮮米夏季運賃交涉은 十二日午後二時부터 京城俱樂部에서 日本內地、朝鮮荷主代表、船主代表가 會見하야 協議한 結果 日本內地荷主側이 議長이되야 交涉方法에 對하야 協議結果 船主代表를 選定하고 十三日午前十一時부터 交涉委員會를 開催하기로 決議하엿다 이의 各交涉委員은 다음과갓다

▲朝鮮內荷主 阿部(新義州)新井(鎭南浦)加藤(仁川)花岡(群山)森田(木浦)

▲日本內地荷主 梅原(東京)木谷(大阪)西田(名古屋)[illegible]

▲船主 三原(朝郵)[illegible](尼崎)[illegible](大阪商船)[illegible]

▲本部 [illegible]會長、[illegible]理事長、伊[illegible]課長

解決은極難

朝鮮米夏季運賃交涉은 本日午前十時부터 京城工務所에서 開 [illegible] 項交涉委員의 會合 午前中은 [illegible]

小作官會議 五月中旬開催

朝鮮農地令公布에 伴하야 各道小作官會議를 五月中旬에 開催하기로 [illegible]

米倉在庫

百五十四萬千餘石 比年六十萬石增加

米倉會社의 十日現在의 在庫高는 百五十四萬千七百五十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六十萬八千四百三十六石의 增加다 (單位石)

木浦	一七五、二六五
群山	四三五、四六〇
仁川	四二〇、九四〇
鎭南浦	二四六、八四〇
釜山	二〇三、三〇〇

今夏氷價打診

昨今時勢는一貫一錢五厘 廉賣戰開始? 氷合同決裂로

今年 여름 얼음 값은 얼마나될까? 氷業者合同이 完全히 決裂되어 이成立되지 못한것이라 [illegible] 價格은 協定 [illegible] 一萬數千餘貫을 보아 이미 [illegible] 新低價를 나타내고 方今 朝鮮天然氷會社 [illegible] 一貫에 一錢五厘을 示하고 昨年同期에 比하야 約一割의 低價이라 京城府民은 오는 여름에 얼음을 싸게 사먹게될 것이라 한다 合同이 今後 如何히 進展될것인가는 未知數이나 決裂되는 대로 進行된다면 勿論 合同이 成立되어도 過剩氷의 過多로 자연 同業者間의 廉賣戰은 不可避할 形勢이라 한다

米니라運動

今後도强化繼續

◇一존슨長官言明

【聯合마이아미(후로리다州)十二日發】十二日 루大統領과 함께 [illegible] 휴·존슨 産業復興局長官은 NRA의 今後方針에 對하야 말하기를 大統領은 依然 同運動强化의 決意가 잇다는것을 말하엿다 大統領은 全國勞働局長官 와그너氏의 提案에 依한 勞働局組織의 恒久化及勞働關係의 交涉擁護에 關한 法案에 對하야는 大贊同이엇다

米日爲替保勢

【聯合東京十三日發】本日의 米日爲替는 前日同樣 三十弗五十仙으로 保合이다

京吉送電에不參加

[illegible] 野口氏를中心으로 東拓 [illegible]

獨逸十八個紡績工場 英國으로大量移轉計劃

猶太人의獨逸品排斥을 防止코저英獨當事者交涉

【倫敦發電】目下英國政府當局에 工場設置許可를 申請中으로서 이 計劃의 動機는 [illegible] 獨逸國內에 外國으로부터 原料輸入資金을 얻기 困難한 까닭이다 獨逸國內製品은 世界의 猶太人이 排斥하고 잇는 [illegible] 獨逸政府로서도 工場을 英國에 移轉하는 것이 一定量의 獨逸原料品을 買得할 約束을 하고 잇다 이 許可를 申請한 結果 政府에 移轉許可를 얻게되어 獨逸十八工場은 輸出의 約二千萬圓(日本貨約)의 生産하는 것으로 英獨當業者의 交涉이 [illegible] 勿論 不明하나 英國은 獨逸紡績工場을 引入하여 日本品 對抗의 一手段으로 할것이라 한다

米賣渡申請

連日減少

【東京電話商通】十二日의 米賣渡申請은 僅히 一萬四千百七十五石에 不過하고 [illegible] 去七日까지의 申請에 比하야 約二萬石激減이엇다 此申請이 昔無하게된 것은 [illegible] 잔存量으로 보고잇다

米檢支所長會議

總督府穀物檢查所에서는 十三日午前十時부터 本所會議室에서 [illegible]所長、東島檢查課長、成田[illegible]長 及 各支所長이 出席하고 本府로부터 山本技師、[illegible] 等이 出席하야 [illegible] 檢查、其他 當面의 重要事項에 關하야 協議하엿는데 午後四時까지 會議를 開하엿는데 會議日程은 十四日까지이다

米穀生産費調查會設置

今日閣議서決定

【電通東京電話】米穀生產費調查에 關하야 十三日의 定例閣議에서 左와 如히 決定하엿다

米穀生產費調查會는 勅令에 依하야 設置하고 開議決定으로 內閣에 設置한다

會長은 [illegible] 總理 委員十五名內 農林省[illegible]、大藏省[illegible]、北島米穀部長、朝鮮總督府[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市況 (四月十三日)

▲東京當局

對米賣	三十弗八分三
對米買	三十弗十六分九
對英賣	一志二片八分一
對英買	一志二片十六分三

▲大阪當局

對米賣	三十弗八分三
對米買	三十弗二分一
對英賣	一志二片八分一
對英買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廿一回五分債 日銀引受決定

【電通東京電話】第二十一回五分利國庫債券 八千九百九十八萬七千圓은 來六月一日 期限이 到來하므로 이에 對한 借替方法에 對하야 協議한 結果 日銀引受에 依하기로 決定하고 十二日 午後四時 日銀으로 招待하야 大藏省 日銀局長 [illegible] 政府의 方針을 說明하고 引受를 求하엿다 [illegible] 同一하게 日銀引受로 할 方針이다

綿粕販賣良好

昭和八年度(自八年四月至九年三月)朝鮮産 綿粕은 目下 統計를 作成中인바 第一回 [illegible]은 (單位千俵)

咸北	二九四
咸南	一九七
江原	二〇四
慶北	二八
慶南	一〇
合計	七三三

에서 二萬俵減少로 七十一萬三千俵 [illegible] 四月에 約五萬俵賣約 [illegible] 前年同月末의 十萬俵에 比하야 六萬俵가 적어 今年의 販賣는 良好하다

朝鐵業績良好

八年下半期

八年下半期 朝鮮鐵道會社의 業績은 자못 良好하야 利益金은 四十二萬六千六百九十一圓으로 內容은 如左하다

鐵道營業收入	一、四六〇、[illegible]
鐵道營業支出	[illegible]
自動車業收入	[illegible]
自動車業支出	[illegible]

奉天驛特産在貨

【奉天電話商通】四月上旬末現在 奉天驛 特産在貨는 如左하다 (單位噸)

大豆	一、五〇〇
其他豆類	一、二〇〇
高粱	一、五〇〇
玉蜀黍	一五〇
粟	六〇〇
小麥	[illegible]
雜穀	三、九〇〇
豆粕	[illegible]
合計	九、[illegible]

局鐵朝鮮米發送 (四月十二日)

	本年	前年	比較
釜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元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城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累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今日의市況

◆四月十三日◆

株式(單位十錢)		正米(三等玄米單位)	
朝新	[illegible]	京城	[illegible]
東新	[illegible]	仁川	[illegible]
期米(單位錢)		商品(單位十錢)	
仁先	[illegible]	綿絲	[illegible]
大先	[illegible]	人絹	[illegible]
正租(仁川)	[illegible]	地金	[illegible]

時勢와市況

株式

場面去益惡化 新低價로氣崩 大局樂觀에下支

前場臺割

昨後場의 大新은 一般人氣가 [illegible] 今朝에 大新 [illegible] 前場 寄付는 [illegible]

後場同調

依然 低調에 當地新甫 [illegible]

大勢만은樂觀이나 嫌氣去益加重

昨後場 阪地大新의 先物賣買 [illegible]

小捌主義로轉換 玉整理는續行 當分低迷未免

株式의 分布運動은 完全히 [illegible]

朝新의獨頑强 逆日步八錢

正租는 [illegible]

政局不安에 阪地一齊崩落

【大阪電話商通】株式界는 [illegible]

財◇海◇餘◇波

實物賣買價前場

▲福券金融一七、八〇▲大同 [illegible]

朝取主要株取組

[illegible]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五、四〇▲二回四分利九八、七〇▲二回四分利九八、七〇▲佛貨四分利一六七、五〇

朝取短期前場步調

[illegible]

朝取短期後場步調

[illegible]

大阪短期前場步調 (午後三時四十分立會中)

[illegible]

大阪短期後場步調

[illegible]

米期

後場底强 小幅相持

後場膠着

仁川人氣下漾

五次買上의有無

朝鮮米 日本移出은 四月上旬의것이 三十一萬五千石이요 昨年十一月以來의 移出累計는 五百二十四萬六千石에 [illegible]

米豆餘錄

▲今朝下放은 政局不安의 影響 [illegible]

各限俵合

堂島前場情報【大阪電話】

米 各地商況

京城低弛

仁川低含

南浦低落

釜山保合

大邱軟化

群山軟弱

木浦反落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海外經濟 / 金融 / 商品

[illegible]

各地賣買石數

日本內各地期米

[illegible]